



광산구의회 '고령친화도시 조성' 간담회

광주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광산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조영임 의원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노인회 광주광산구지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광산구의 고령친화도시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인증 획득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하 (사)사회경제연구원장은 "지역 특성을 살린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WHO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국내 80여곳의 지자체에서 인증을 추진 중이다"며 "어르신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치우 증진 등이 이뤄져야 하며, 국제 인증을 통해 노인 복지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상철 기자



KT전남전북본부, 만학도 '랜선야학' 성료

KT 전남전북광역본부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만학도들을 대상 '랜선야학(夜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최근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랜선야학'은 KT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해온 온라인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고등학생의 학습공백을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대외활동의 제약을 겪는 대학생들을 동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목포제일정보중고교의 랜선야학 프로그램은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멘토 1명당 만학도 멘티 3명으로 구성된 학습 그룹에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매주 2시간씩 6개월간 온라인 그룹 수업으로 진행됐다. KT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플랫폼과 교재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멘토 대학생들에게는 6개월간 장학금을 지원한다. 박소영 기자



서구, 어린이 작가 생태동화 그림책 제작

광주 서구는 지난 22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 '제5회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는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어린이의 시선에서 풀어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구에 사는 3~6학년 초등학생 10명은 지난 4월부터 20회의 수업을 통해 자연보호에 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작하고 직접 그림을 그려 그림책을 완성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참가자들의 노력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10권의 개성 넘치는 그림책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늘봄아파트에서 생긴 일'을 책으로 펴낸 한 학생은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 동화책을 쓰게 됐다"며 "한강 작가처럼 사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써서 노벨 문학상에 도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성아 기자



광산구의회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장이 지난 20일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청소년 도박 근절 프로젝트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사진)

지난 3월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시작된 이번 챌린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불법 도박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의장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광산구의회 박해원 운영위원장, 정재봉 윤리특별위원장, 윤혜영 의원 3명을 추천했다.

김명수 의장은 "학교 밖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은 사이버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범사회적인 차원의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와 온라인 문화를 통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신수정,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간담회

광주시의회는 신수정 의장이 최근 광주시 은둔형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대상 사회생활 기술훈련 프로그램 '아무튼, 출근'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신수정 의장이 은둔 당사자들에게 덕담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장은 "5년 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은둔 당사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이 은둔 당사자와 가족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시의회 행정위, '옛 전남도청 복원현장' 방문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2일 옛 전남도청을 방문해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위원들은 이날 대표전시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추진단에 원형복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전일빌딩245를 찾아 '복원 기다림 3000일 기념' 지킴이 어머니들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은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광주시민이 수호한 공동체 정신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통해 미래 세대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민경훈, 미모의 신부 공개... '아는형님' 출신 PD

밴드 '버즈' 민경훈(39)의 부인이 공개됐다. (사진)

23일 방송한 JTBC '아는 형님'에선 민경훈의 결혼식이 공개됐다. 신부는 신기은 PD다. 두 사람은 2018년 아는 형님에서 만났으며, 지난해 연말께부터 교제해 부부 연을 맺었다. 신 PD는 연예인 못지 않은 미모로 시선을 끌었다. 현재는 아는형님 연출을 맡고 있지 않으며, 새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날 아는 형님 멤버들은 버즈 '남자를 몰라'를 추가로 불렀다. 민경훈은 마이크를 건네 받아 열창해 감동을 줬다.

민경훈은 혼인 서약서를 통해 러브 스토리를 공개했다. "기은이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며 "기은이가 캠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를 도와주려 온 그날이 시작이었다. 찬바람이 많이 불어 추웠을텐데 묵묵히 도와주는 기은이를 보고 '아, 이 친구 일 잘한다' 싶었다. 1박2일 동안 아무도 없는 빈 캠핑장에서 단둘이 함께 트리를 만들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은 서울에 돌아와서 생겼다"고 회상했다.

신 PD는 버즈 팬으로 알려졌다. 뉴스스



"18년 전 콘서트 후 하이파이브 이벤트에서 스쳐 지나갔던 조금은 차가워 보였던, 다른 세상의 사람 같았던 그 사람과 지금 내 앞에서 있는 이토록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며 "연예인에 관심 없던 내가 유일하게 버즈는 좋아했고 TV도 잘 안 보는 내가 엉뚱하게 예능 PD가 됐고 쇼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지만 버라이어티만 맴돌았는데 그 모든 인생의 길이 오빠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이제 나는 운명이 이끄는 길을 의심없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영화 '위키드' 입소문... 나흘째 박스오피스 1위

영화 '위키드' (감독 존 추)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사진)

24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위키드는 전날 21만4842명이 봤다. 누적 관객수는 45만5277명이다. 20일 세계 최초 개봉, 나흘 연속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이 영화는 자신의 힘을 발견하지 못한 '엘파바' (신시아 에리보)와 본성을 발견하지 못한 '글린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우정을 쌓아가며 맞닥뜨리는 모험을 그렸다. 2019년 나온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2003년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다. 한국에서도 2013년부터 공연하고 있다.

김우빈, 5년 만 팬미팅... 내년 1월11일 확정

배우 김우빈(사진)이 5년 만에 단독 팬미팅을 개최한다.

24일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우빈은 내년 1월 1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25 김우빈 팬미팅 '우빈스 다이어리 (Woobin's Diary)'를 연다.

2019년 팬미팅 '땡큐(Thank You)' 이후 약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팬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다.

이번 팬미팅은 '우빈스 다이어리'라는 타이틀로 진행된다. 하루하루 감사한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김우빈이 팬들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으로 다이어리의 한 페이지를 따뜻하게 채우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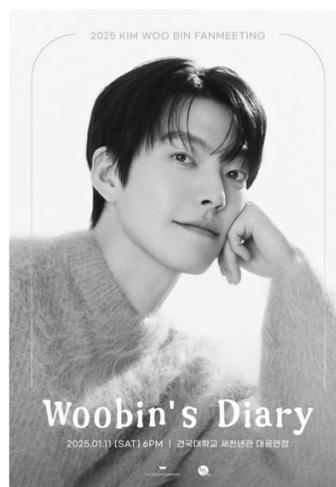
김우빈은 올해 공개한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에서 열혈 청춘 이정도를 맡아 연기 변신을 꾀했다.

'무도실무관'은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영화(비영어) 부문 3주 연속 1위를 지키며 글로벌 인기를 실감케 했다.

김우빈은 차기작으로 로맨틱 코미디



2위는 송승헌 주연 '히든페이스' (감독 김대우)다. 10만3288명을 동원, 누적 관객수 26만1516명을 기록했다. '글래디에이터 II' (감독 리들리 스콧)는 5만9086명을 모았으며, 총 관객수는 67만5736명이다. 뉴스스



장르인 넷플릭스 '다 이루어질지나'를 선택했다. 가수 겸 수지와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이후 7년 만의 재회다.

2025 김우빈 팬미팅 티켓은 공연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팬카페 인증을 통한 선예매는 내달 5일 오후 8시, 일반 예매는 같은 달 9일 오후 8시부터 가능하다. 뉴스스